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예원의 집 기부금 전달

성낙성 기자 jebo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12.18 19:52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 ↑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예원의 집 에 기부금을 전달했다.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6일 성주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해솔 예원의 집을 방문해 기부금 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해솔 예원의 노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공공가치 실현